

北京外国语学院外国文学选集丛书

한국문학 선집

韩国文学选集

金京善 编



北京外国语大学
外国文学选集丛书

한국문학선집
韩国文学选集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京)新登字 155 号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文学选集/金京善编.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1998
(外国文学选集丛书)
ISBN 7-5600-1459-3

I. 韩… II. 金… III. 文学—作品综合集—韩国—现代
IV. I312.61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98)第 17060 号

韩国文学选集

金京善 编

* *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出版发行

(北京西三环北路 19 号 100081)

<http://www.fltrp.com.cn>

北京外国语大学印刷厂印刷

开本 850×1168 1/32 30.5 印张 626 千字
1998 年 10 月第 1 版 1999 年 10 月第 2 次印刷
印数: 1001—3000 册

* * *

ISBN 7-5600-1459-3
H·826

定价: 39.90 元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出版社负责调换

北京外国语大学学术系列丛书
编辑委员会

主任委员：王福祥

副主任委员：何其莘

委员(以姓氏笔画为序)：

刘润清 余章荣 李朋义

胡文仲 胡壮麟 黄勃

北京外国语大学 外国文学选集丛书

各选集名称	编 者
《英国文学选集》	何其莘 (博士、教授) 张 剑 (博士、副教授) 侯毅凌 (副教授)
《美国文学选集》	钱 青 (博士、教授) 金 莉 (博士、副教授)
《俄罗斯文学选集》	张建华 (教授) 任光宣 (教授) 余一中 (教授)
《德语文学选集》	韩瑞祥 (博士、教授) 王炳钧 (博士、教授)
《法国文学选集》	张 放 (教授)
《意大利文学选集》	沈萼梅 (教授)
《西班牙文学选集》	刘永信 (教授) 董燕生 (教授) 丁文林 (副教授)
《拉丁美洲文学选集》	郑书九 (博士、副教授) 常世儒 (博士、副教授)
《阿拉伯文学选集》	齐明敏 (博士、副教授) 薛庆国 (博士、副教授) 陈冬云 (博士、副教授)
《日本文学选集》	陶振孝 (副教授) 赵小柏 (副教授)
《韩国文学选集》	金京善 (博士、副教授)

序

编写一套通用语种国家或地区的原文文学选集是我国外国文学界的著名学者、已故的北京外国语大学教授王佐良先生在几年前提出的一个大胆设想。这个计划起源于1993年。受国家教委专业外语教学指导委员会的委托,王先生领导下的北京外国语大学外国文学研究所和北外英语系于1993年连续举办了两届英美文学教学系列讲座,吸引了数十所高校、近百名讲授英美文学的教师,共同研讨如何对我国高校外语专业的学生讲授有关国家的文学作品。随着讨论的深入,一个问题突出地摆到了教师们的面前:我们这样一个文化大国竟然没有适合我国高校学生使用的原文文学选读教材。王佐良先生当即请北外的教师和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把这项重任承担起来,说:“编写和出版这样一套原文的外国文学选集是一件功德无量的大事。”

经过几年的准备,这套原文的外国文学选集丛书终于问世了。由北京外国语大学科研处和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共同组织编写的这套原文文学选集,就是为了满足高校外语专业对外国文学选读教材的需求。参加编写工作的是二十几位北外和其他几所重点院校长期从事高校外国文学教学工作的教师,他们都有在所学专业国家进修学习的经历,其中很多人在国外获得了外国文学的博士学位。

这套外国文学选集丛书包括英国、美国、俄罗斯、法国、德国、西班牙、意大利、阿拉伯、拉美、日本、韩国等十一个国家和地区。各本选集又涵盖了每一个国家或地区文学的全过程,即从文学发展的初期至20世纪80年代。虽然根据各国文学发展的不同特点,各本选集均有不同的侧重点,但是每本选集都包含了文学史上

各重要阶段的代表作家,也涵盖了诗歌、散文、小说和戏剧等主要文学形式。

选集的重心是作品本身,简明扼要的“作者简介”和脚注是为了帮助学生理解作品,而选篇之后的思考题则希望学生在理解了作品的语言之后,将目光转向作品的深层含义,从中挖掘出更多的精神食粮。

既然是选集就不可能做到面面俱到,而作家和作品的取舍常常会引发一些争议,在这方面,各本选集的编者采取了比较现实的态度。各国的经典作家是经过无数代的读者反复衡量而逐渐形成的,他们在各自的国家得到认可,他们的代表作也就自然而然地出现在我们的选集之中。因此,我们书中所列的作家和作品的单子基本上是一个传统的单子。但是,既然编著者都是有教学经验的中国教师,他们在衡量取舍的过程中,充分考虑到了中国学生的接受能力和中国高校的教学特点。这大概就是这套文学选集优于引进的国外同类选读本的主要方面。

在这套选集出版之际,我愿代表全体编者对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的支持和鼓励表示深切的谢意。

何其莘

1997年7月14日于北京

《한국문학선집》 서

한·중 양국간은 수교된지가 이미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두 나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중 양국의 관계가 날로 향상되는데 힘입어 문화 분야에서도 이제는 보다 깊은 교류를 가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북경외국어대학 한국어과 김경선 선생님이 2년간의 노고 끝에 《한국문학선집》을 내게 되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70여 편의 정선된 우리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지금까지 한국 문학이 소개된 도서 중 가장 체계적이며 분량이 많은 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문학을 강의하는데도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21세기를 지향하면서 한·중 두 나라간의 문화가 보다 더 심도있고 폭 넓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과 더불어 김경선 선생님의 보다 많은 연구 성과가 한·중 문화교류 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하지 않는다.

1998년 7월 7일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문화담당관 류재기 씀

역은이의 말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접속하면서 한국문학에 깊이 매료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문학을 여러 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싶은 소망이 생기었다. 다행히 우리 대학에서 외국문학선집총서를 발간하여서 이 교과서를 편찬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 나의 짧은 한국문학 실력으로 여러 분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한다는 것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될 수록이면 한국문학발전의 전과정을 보여주하고자 한국 고전작품부터 현대 80년대까지의 작품을 수록하였고 작가 소개, 작품 명의, 원문, 낱말 주석, 감상 연습 등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단 이 책이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과 학생들의 교과서 용으로 쓰이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을 감안하여 현대문학작품을 소개하는데 치중점을 두었음을 일러두는 바이다. 그리고 독자들이 한국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편차가 없도록 하려고 강의용으로는 약간 우리가 따르는 중편소설들도 몇 편 소개하였다. 작품 뒷 부분에 있는 감상 연습은 행여 한국문학을 강의하시는 여러 선생님께 참고가 될까하여 붙여 두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이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역은이의 간절한 바램이다.

2년이란 시간을 들여 작품을 선택하여 이 책을 만들었으나 정작 내면서 보니 훌륭한 한국문학 작품들을 많이 빠뜨리지 않았나 싶다. 또한 편자의 수준상 제한으로 여러가지 결함과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짐작된다. 한국문학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편달이 있기를 기원한다.

1998년 7월

역은이 씀

목 록

1. 고전문학부분

(작가미상)/청산별곡	1
황진이/청산리 벽계수	4
양사언/태산이 높다 하되	6
정 철/훈민가	8
김만중/구운몽	11
(부명씨)순향전	21

I. 현대문학부분

[형성기]

안국선/금수회의록	39
최남선/해에게서 소년에게	61
이광수/무정(발췌)	64
김 역/오다 가다	81
물매	82
염상섭/두 파산	84
주요한/불놀이	99
김동인/배따라기	101
현진건/빈처	116
최서해/탈출기	134
조명희/낙동강	144
한용운/님의 침묵	158
알 수 없어요	160
이상화/나의 침실로	16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63
김소월/진달래꽃	165

산유화.....	166
나도함/병어리 삼룡이	168
주요섭/사랑 손님과 어머니	181
채만식/레나메이드 인생	203

[전개기]

이래준/복떡방.....	231
정지용/향수	245
백록담.....	247
김영랑/모란이 피기까지	249
이육사/광야	251
청포도.....	252
결정	253
신석정/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254
꽃땀불.....	256
강경애/원고로 이백원	257
김유정/동백꽃.....	265
이효석/메밀꽃 필 무렵	273
김정환/사하촌.....	283
이 상/거울	314
오감도	315
날개	316
김평균/추일 서정	338
와사동.....	339
계용복/백치 아다다	341
정비석/성황당.....	356
김종리무녀도	382
오영수/갯마을.....	406
유치환/생명의 서	422
일월	423
서정주/국화 옆에서	425
황순원/소나기.....	427
박목월/청노루.....	438

나그네	439
박두진/해	440
조지훈/승무	442
낙화	444
윤동주/서시	446
별 헤는 밤	447

[성장기]

김광섭/성북동 비둘기	449
김수영/눈	451
목포	452
풀	453
정한모/나비의 여행	455
김준수/처용단장	457
꽃을 위한 서시	458
안수길/제3인간형	459
전광훈/꺼베단 리	487
강신재/젊은 느티나무	513
이웅진/칠면조	534
박경리/불신시대	551
토지(발췌)	573
하근찬/수난시대	585

[개회기]

이근삼/국물 있사옵니다	598
박완서/흑파부	651
최일남/서울 사람들	664
신동엽/접대기는 가라	681
신경림/농무	683
최인훈/웃음소리	685
이청준/병신과 머저리	698
김승옥/무진기행	727
윤홍길/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755

최인호/타인의 방	791
황석영/삼포 가는 길	805
박범신/읍내 떡방앗	825
오정희/저녁의 게임	882
이문열/필론의 돼지	901
서영은/먼 그대	916
이창동/소지	936

청산 별곡(靑山別曲)

(작자 미상)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①살어리랏다②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③

우러라④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⑤
자고 니러 우니노라⑥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새 가던새 본다
몰아래 가던새 본다⑦
임부는 장글란 가지고⑧
몰아래 가던새 본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머렁공 하야

① 애— 예서

② 살아가리라, 또는 살수 있었을 것으로도 해석한다.

③ 뜻 미상. 후렴구로 볼 수 있을 듯.

④ 우는구나

⑤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⑥ 자고 일어나 울고 있노라

⑦ 몰아래 가던(飛行)새 보았느냐

⑧ 이끼 묻은 쟁거들 가지고

나즈란 디내와 손더^①
 오라도 가리도 업슨
 바므린 또 엇디 호리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② 마치던 돌코
 프리도 피리도 업시^③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라매^④ 살어리랏다
 나마자기^⑤ 구조개랑 먹고
 바라매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⑥
 애정지^⑦가다가 드로라
 사사미 짐대에 올라서^⑧
 해금울 혀거물 드로라^⑨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배부른 도곡^⑩

① 낮은 지내였지만

② 누구를

③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④ 바다에서

⑤ 줄이름

⑥ 가다가 가다가 들었노라

⑦ 뜻 미상. ⑧종지(宗智): 해금의 명수. ⑨해 저물녘에

⑩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짐대: 돛대로도 해석함.

⑪ 해금울 켜는 것울 들노라.

⑫ 갔더니 배부른 독에

선전 강수불 비조라¹

조롱꽃 누르기 매와²

잡사외니 내 잊디하리잇고³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감상 연습

1. 이 시를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단락을 나누라.
2. 이 시의 운율적 특성을 말해 보라.
3. 이 시의 작가의 신분을 말해 보라.

-
- ㉠ 폭한 흙을 빛는구나
 - ㉡ 조롱박에 누룩을 매어
 - ㉢ 불잡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황진이(黃眞伊, ? ~?)

조선 중종, 명종, 선조 때의 명기이다. 자는 명월이다. 한시와 시조에 뛰어났으며 서경덕, 박연복포와 더불어 송도 삼절(松都三絶)로 불리웠다.

그는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예에 두루 능했으며 뛰어난 재능과 발랄한 개성으로 여러 명사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그는 한시도 남겼으나 특히 시조를 통하여 뛰어난 창조력을 아낌 없이 발휘하였다. 기생으로서 사랑을 노래한 그의 시조는 사대부 시조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표현을 갖추어 관습화 되어 가던 시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청산리 벽계수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一到滄海)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명월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수여 간들 잊더리

동짓달 지나간 밤을 한 허리를 버려내어
춘풍 니불 아페 서리서리 너췌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워구워 퍼리라

내 언제 무신하여 님을 언제 소켓판대
월침삼경(月沈三更)①에 온 뜻이 전쳐 없네
추풍에 지는 님소되야 낸들 어이하리오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다나
이시라 하다면 가랴마는 제 구태어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① 달도 없는 깊은 밤에